



## 1.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

-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·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, “175조원+@ 프로그램”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.
  - 집합제한 소상공인(3조원)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(3.6조원)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    - \* 집합제한업종 : 1년차 면제, 2~5년차 0.3%p 차감 / 일반피해 소상공인: 1년간 0.6%p 차감
  -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약 3개월 연장하고 ('21.2월초 → 4월말),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(現 '21.4월말)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.
- 또한,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하여, 소상공인·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  -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폐업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,
    - 폐업 후에도 당초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. (상세내용 참고1 참조)

## 2.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잠재리스크 관리

-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(視界)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\*하겠습니다.
  - \* (예)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~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'19년도 수준 (4~5%대)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
-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,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「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」을 '21.1분기중 마련하겠습니다.
- 장기모기지 도입,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·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  - \* (예)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 등

-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, 기업상황에 맞는 투 트랙(Two-track)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.
-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저 자료를 집중·관리하는 DB 플랫폼을 구축하고, “(가칭)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\*”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.
  - \* (예)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·산업·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
- 코로나19로 “일시적 유동성 부족”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+@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\*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,
  - \* 산은 「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」(1조원+@), 기은 「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」(1조원) 등
- 환경변화 과정에서 “구조적 어려움”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.

### 3.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

-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.
- '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고,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(1,400억원 목표)하겠습니다

#### ※ (참고)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접수(1월26일) 결과

- 당초 목표금액(3조원)의 3배가 넘는 9.7조원 규모의 제안 접수  
→ 3.2: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
- 투자제안 분야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그동안 민간투자가 부족했던 분야(예: 환경개선·환경보호 등)까지 포괄 → 모든 뉴딜분야(40개)에 걸쳐 투자제안 접수

- '21년중 17.5조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지원하고, 사업설명회 등 민간금융의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.
- \* (대출) 11.9조원, (투자) 0.2조원, (보증) 5.4조원

- 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
-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확대('19년 6.5% → '30년 13%)하고, 녹색분류체계 확립\*시 녹색특화 대출·보증 프로그램\*\*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.

\* 녹색에 해당되는 산업·기업을 규정하여 녹색범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

\*\* (예) 녹색특별대출, 녹색기업 우대보증, 특별온렌딩 등

- 「금융권 기후리스크\* 관리 가이드라인」, 「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(21.上)\*\*」 등을 마련하여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\* (예) 기후변화에 따른 실물부문 물적피해로 인한 시장·신용리스크 등

\*\* (예) 녹색분류체계 정비,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

-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(21.1분기),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방안 검토(21.4분기) 등 기업·투자자들이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□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신(新)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.

-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을 지속 발굴(21년중 최대 400개 이상, 현재 279개 선정) 하고 인센티브 부여\*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.

\* (예) 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

- 동산담보·지식재산권(IP) 등 자산·기술력을 토대로 한 자금조달을 지속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.

#### 4. 금융산업 자율성·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행정 개선

□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\*, 금융업 인·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\*\* 등 현행 제재·인허가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\* (예)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영지도,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

\*\* (예) 심사중단의 과도한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심사재개 사유 구체화 등

- 금융위와 금감원은 「금융권 불합리한 제도개선 TF」를 운영중이며,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□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\*를 추진하겠습니다.

\* (예)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, 금융권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등 검토

## 1.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개요

-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은 현행 금융 지원체계 하에서는 혁신성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,
  - 금융-산업부문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.
- 먼저, 분야별 주관부처가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·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·선정하고,
  - 선정기업 중 금융수요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지원반\*에서 기업규모, 금융수요 등을 검토 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\* 산은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(간사), 수은, 기은, 신보, 기보, 성장금융으로 구성

## 2. 선정 및 지원현황

- 그간 산업부, 중기부 등 5개 부처와 2차례('20.7월, 11월)에 걸쳐 총 279개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.

\* (산업부) 주력제조분야 97개, (중기부) 78개, (과기정통부) 과학기술분야 40개, (복지부) 보건복지분야 34개, (해수부) 해양수산분야 30개

## &lt;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&gt;

## ◇ 대형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 A사 (에너지 부문)

- 혁신성 : 대형풍력발전 전기타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장력 파스너(fastener)제품 생산
- 기 타 : 독일 파스너 전문 유통업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판매처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

⇒ '20년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·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,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감안, 적극적 심사를 통해 산은 160억원, 수은 95억원 대출 지원

## ◇ 초신선 정육 가공 유통기업 C사 (첨단제조자동화 부문)

- 혁신성 : 도축 이후 1~4일 내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'초신선 온라인 정육점' 예측발주, 적시생산, 정량 후불결제 등을 위한 IT솔루션 자체구축
- 기 타 : '17~'19년 연평균 113% 매출액 성장

⇒ 지원당시 다소 재무구조가 열위하였으나, 빠르게 매출성장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산은 310억원 대출 지원

- 선정된 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90개사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78건, 1조 752억원의 대출, 보증, 투자를 지원하였고,
  - 특히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각 분야 유망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「산은 넥스트라운드(NextRound) 특별세션 ('20.12.18일)」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.
- 금융지원이 어렵거나, 컨설팅 등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는 혁신성장을 촉진·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非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

### 3. 향후 추진계획

- ① 매 반기별 200개 이상 혁신기업을 발굴하여, '22년까지 총 1,0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,
  - 금년 상반기부터는 선정기관을 다변화하여 콘텐츠,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.
  - \* (현행) 산업부, 중기부, 과기정통부, 복지부, 해수부  
 (개선) 현행 참여부처 + 문체부, 국토부, 환경부, 농·식품부 등
- ②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금융 외에도, 민간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.
  - 국내외 투자 설명회, 금융투자업계·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을 마련하여 대규모 자금유치를 지원하고,
  - 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\*하여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.
  - \* (예) 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해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
- ③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  - 선정기업 지원현황, 기업 애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,
    - \* 금융애로 지원단: 산은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(간사), 수은, 기은, 신보, 기보, 성장금융
  - 선정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을 점검하여 혁신 기업 Pool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.



\*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를 통칭

- 최근 기후·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,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(E)쟁점이 부각됨에 따라 ESG 관련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
- 국제적으로는 민간 선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과, 정부 주도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
  -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자사 경영전략에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통합시키고, ESG 투자규모를 점차 증대\*시켜 나가고 있습니다.
    - \* 글로벌 ESG 투자규모는 약 40.5조 달러(20.6월말 기준) 수준으로, 7~8년 사이에 3배 증가
    - 최근 들어, ESG펀드\*와 ESG채권\*\*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, 기존 전통적인 자본시장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
      - \* ESG 펀드 규모는 '20년 하반기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
      - \*\* '20년말 기준 녹색채권 글로벌 누적 발행총액은 1조 달러 돌파
  - 해외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들도 ESG 요인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와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조성을 통해 ESG 규율체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.
    - \*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무적 영향 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권고안,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리스크가 금융회사 수익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고안 등
- 이에 비해, 그동안 국내에서 녹색금융 등 ESG 관련논의는 “선의·당위”에 근거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.
  - 다만, 최근에는 ①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핵심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, 금융권의 ESG 포트폴리오 조정 및 공시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  - 아울러, 특히 “환경”과 관련한 기후변화는 ②금융회사에 비전통적(unorthodox)인 신규 리스크를 유발하여 건전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있어,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


-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“ESG 기준강화” 추세에 대비하여, 정부, 기업, 투자자, 금융회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- 특히,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이 통합(align)되어 국내 금융회사들도 ESG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.
- 또한,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## 5 분과회의시 논의사항

-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관련
  - 분과위원들은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,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  - 선정기업과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사후 비교·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 제고하고,
  - 정책금융 지원이 민간의 후속투자로 연결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  - 또한,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, 현재 적용중인 행정적 면책 이외에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갖는 다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

## □ ESG 국제동향 및 시사점

- 분과 위원들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ESG 활성화 노력\*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\* (예) 탈석탄 선언 금융회사에 대한 예대율 등 인센티브 부여, ESG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

- 또한, 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보다는,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규정·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,
  - ESG 관련 일반 기준을 정립하더라도 모범사례·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제공하여 기업·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- 한편,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 제도 뿐만 아니라 고용·생활여건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\*이 필요함을 강조하며,

\* IB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재량근로제 시행,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

- 금융위가 관계기관(고용부·서울시·부산시 등)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- <별첨> ① '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정책·글로벌 분과 소관사항  
②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
③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

 공공누리 공공지각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법률관리자센터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◇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이라도 폐업시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 발생

☞ 소상공인이 대출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으로,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 초래

□ (현황)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시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\*하고,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습니다.

\* 신보법은 보증대상을 "사업을 하는" 기업으로 한정 → 폐업기업은 보증이 일부 제한 (단, 소상공인이 재창업 등을 전제로 폐업하는 경우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보증을 유지)

□ (개선방안)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이라면,

○ 당분간은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 하여,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.

☞ 신보는 「원리금 연체없는 폐업 소상공인」에 대해 한시적으로 ('21.2.15일~9.30일) 부실처리를 유보하고,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토록 유도하겠습니다.

※ 신보는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시에는 정상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



※ 非보증부 대출은 '09년 금융위기시 행정지도를 통해 "폐업했으나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일까지 상환유예"하도록 은행 내규화

- (전통적 금융투자와의 차이) 종래의 금융투자는 신용·시장·운영 리스크 등 전통적 금융리스크를 고려하는 반면,
  - ESG 투자는 기업 지배구조,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과 연계시켜 반영합니다.



- (ESG 투자 작동방식) 피투자기관의 ESG 분야별 익스포저,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하여 투자기관 조달 메커니즘에 반영합니다.

